

# 광복사, 집단감염 종합판...방판업·여행·종교

일본, 광주 코로나 19 광복사서 시작...감염 계속 이어져

“무증상 연결고리 이어질 특성...조사 쉽지않아”

광주 광복사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고위험시설로 삼시간에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체, 교회, 여행, 요양시설 등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한 번에 쏟아지는 양상이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역 코로나19는 광복사에서 시작해 방문판매업체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이들 중 확진자가 제주도 여행을 가거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해 추가 감염자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다닌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다

양한 시설에서 감염이 이어졌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광복사 관련 확진자가 49명”이라며 “초발은 일단 종교시설인 광복사로 판단하고 있고 금양빌딩이라던지 다른 종교모임, 직장 등 추가 환자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내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광복사와 관련된 감염인 것으로 재분류됐다. 광복사 관련 감염집단 또는 시설은 △방문판매업체 입주 금양빌딩(오피스텔) △제주도 여행객 모임 △광주 사랑교회 △CCC아카데미센터 △한울요양원 5곳이다.

현재 각 집단 및 시설의 지표환(첫 확진자)자 확인일은 광복사와 금양빌딩이 지난 달 27일로 가장 빠르다. 관련 확진자 규모는 광복사 12명, 금양빌딩 14명이다.

이 금양빌딩 확진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인 광주 46번 확진자가 다니는 CCC아카데미센터와 광주사랑교회에서도 각각 입소자 3명, 교인 13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특히 그동안 감염경로를 알 수 없었던 제주도 여행객 모임 관련 확진자 6명도 광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날 다시 분류됐다.

제주도 여행객 모임의 경우 광주 45번 확진자가 여행 후 해피병원원에 입원해 병원 감염인지 외부 감염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 광주 46번 확진자 이외 다른 1명의 요양보호사(광주 72번)도 감염됐다.

이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곳은 한울요양원으로 1명 이외 다른 추가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광주의 경우 아직 유입경로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달리 파악된 사항은 없다”며

“무증상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규탄 기자회견

민중노총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삭감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광주 확진자 4명 결혼식장 방문 ‘비상’

라페스타·데일리컨벤션·제이아트웨딩컨벤션 다녀와

코로나19 광주 확진자 4명이 결혼식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4명이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48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광주 서구 라페스타 2층 피로연장을 다녀갔다. 같은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광주 데일리컨벤션 3층에서 열린 라이온스클럽 이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또 27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광주 데일리컨벤션 3층 결혼식장과 지하1층 뷔페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12

시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서구의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결혼식장에도 참석했다.

51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 6시30분까지 라페스타 2층 피로연장을 다녀갔고, 52번 확진자도 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라페스타 2층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

70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라페스타 2층 피로연장을 찾았다.

시 관계자는 “이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빨리 보건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파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첫날 광주...“마스크라도 꼭 써야죠”

강화된 지침 지키기 동참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속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일 오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

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전 9시부터 30여분간 정류장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없었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당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 모두 ‘불안하다’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5·여)는 “집 주변에서 지주 확진자가 나와서 불안하다. 일을 해야하니 밖으로 안 나올 수도 없고 마스크가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꼭 챙겨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자은면에서 병원진료를 위해 광주를 찾은 70대 여성은 “보호병원을 가

야해서 광주에 올라왔는데 광주에서 코

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됐다.

그렇다고 진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아픈 건 마찬가지니 최대한 조심하자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챙겨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8)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실히 저번주까지만 하더라도 더워서 마스크를 걸치거나 들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었다. 버스를 탈 때 부랴부랴 마스크를 챙겨 쓰고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 것 같아 달라진 분위기가 반갑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협조하겠다”

방역당국이 2일 최근 광주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 자체의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단위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신규 확진자 기준을 각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광주시 조치에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들의 방역조치를 함께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단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일지라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